

포스트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저항의 방식: 2024 응원봉 시위의 음악적 수행성과 느슨한 연대

송현정

전북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

목 차

- I. 서론: 광장의 변화와 수행적 저항의 등장
 - II. 이론적 배경
 - III. 역사적 배경: 2000년대 이후 시위 문화의 변화
 - IV. 응원봉 시위의 수행적 구조 분석
 - V. 디지털 밈을 통한 수행의 순환과 확장
 - VI.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4년 탄핵 촉구 응원봉 시위를 음악적 수행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케이팝이라는 대중 음악의 기표가 어떻게 정치적 저항의 언어로 전환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환이 광장과 디지털을 가로지르며 어떤 방식으로 집합적 정치 행위를 구성하였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프리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과 헨리 젠킨스의 참여문화 이론을 분석의 주된 틀로 삼는다. 먼저 알렉산더의 이론을 통해 응원봉·깃발·음악 등 케이팝 팬덤의 물질적 기표들이 배경 표상, 각본, 미장센의 재융합을 거쳐 광장에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어서 젠킨스의 참여문화 이론을 통해, 광장에서 생산된 퍼포먼스가 디지털 밈으로 압축 재조합되어 순환하는 구조, 즉 X(구 트위터)의 수평적 확산, 틱톡의 음악 기반 재생산, 유튜브의 아카이브화가 어떻게 광장의 퍼포먼스를 시공간의 경계 너머로 확장하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단일한 이념

이나 조직적 소속 없이도 이질적 주체들이 공통의 기표를 매개로 일시적으로 결집하는 느슨한 연대의 구조를 해명한다.

분석의 결과, 2024년 응원봉 시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수행적 저항의 양식을 보여준다. 첫째, 케이팝 음악은 참여자들의 신체에 이미 각인된 배경 표상으로서 퍼포먼스의 각본으로 기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만 명의 개인들이 동조화된 집합적 행위자로 구성되었다. 둘째, 광장은 케이팝과 민중가요라는 이질적 세대의 음악적 언어가 긴장하고 접합하는 매개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세대를 가로지르는 문화적 번역과 상호 학습의 장이 되었다. 셋째, 광장의 퍼포먼스는 디지털 밈의 순환을 통해 물리적 현장 너머로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침투하는 포스트 디지털적 저항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케이팝이라는 탈정치적 대중문화 기표가 광장이라는 수행의 맥락 속에서 정치적 저항의 언어로 재전유되는 과정을 논증함으로써, 음악의 정치성이 텍스트 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의 맥락 속에서 매번 새롭게 구성된다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2024년 응원봉 시위가 한국 시위 음악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역사적 축적 위에서 이루어진 접합이자 변형임을 규명한다.

■ 주제어: 수행성, 응원봉 시위, 케이팝 팬덤, 포스트 디지털 시대, 느슨한 연대, 디지털 공론장

1. 서론: 광장의 변화와 수행적 저항의 등장

한국 사회에서 광장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집단적 신체성을 통해 발현되는 상징적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역동성이 가시화되는 수행적 토대로 자리매김 해왔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초기 시위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항거하는 엄숙함과 비장함으로 표상되었다(박선웅 1998, 29-61). 최루탄이 난무하는 거리에서 투사들이 제창하던 투쟁가와 붉은 머리띠, 그리고 결연한 구호는 시위의 정치적 진정성을 담보하는 필수적 요소였으며, 이 시기의 광장은 일상의 영위가 일시 정지된 채 생존과 신념의 사투가 벌어지는 ‘비일상의 엄숙한 전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24년 말, 한국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재등장한 광장의 풍경은 이러한 전통적인 저항에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시민들은 과거의 투쟁적 도구 대신 각자의 정체성과 취향이 투영된 케이팝 응원봉을 지참하였으며(김형주 2025, 7), 광장은 비장한 전장의 성격을 넘어 다채로운 빛과 리듬이 교차하는 ‘수행적 광장(Performative Square)’이자 축제적 공간으로 변모하였다(안선희 2018, 43, 49-50). 이러한 시위 문화의 반전은 정치참여의 동력이 물리적 투쟁에서 ‘심미적 수행’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화된 ‘경직되고 견고한 연대’를 넘어 개별 참여자들의 취향과 일상을 공유하는 ‘부드럽고 유희적인 연대’로의 이행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을 이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행위를 하나의 상징적 공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제프리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은 정치적 행위를 단순한 도구적 실천이 아니라, 배경 표상, 각본, 행위자, 관객, 물질적 상징, 사회적 권력이라는 요소들의 융합을 통해 의미와 정당성이 생산되는 수행적 사건으로 이해한다(Alexander 2006). 이 관점에서 보면 2024년 광장의 변화는 단지 시위 도구가 응원봉으로 바뀐 표면적 사건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열 자체가 재편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과거의 엄숙한 전장이 투쟁가와 머리띠라는 물질적 상징을 통해 비장함의 정서를 융합시켰다면, 2024년의 광장은 응원봉과 케이팝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적 상징을 통해 유희와 연대의 정서를 융합시킨 것이다. 즉 퍼포먼스의 근본 문법은 유지된 채, 그것을 채우는 기표의 성격이 전환된 셈이다. 이 지점에서 이현재의 논의는 이러한 정동적 전환이 어떠한 공동체적 원리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유효한 분석틀을 제공한다(이현재 2025). 이현재는 근대 도시공동체의 파괴가 ‘강한 상관주의’와 ‘외파적 전체론’,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한 동일성의 반복이라는 인문적 원리에서 비롯됨을 논증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파적 전체론(implosive whole)’과 ‘저월하는 비체들의 연대’를 제시한다(이현재 2025, 4). 내파적 전체론은 부분들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지 않고 모순과 이질성을 그대로 남겨둌으로써, 오히려 그 잔여와 균열을 통해 개별 신체들이 자신의 차이를 지운 채가 아니라 지닌 채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며, 이것이 바로 느슨한 연대(Loose Solidarity)(Mark Granovetter 1973)가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느슨한 연대 속에서 광장의 유희적인 사회 퍼포먼스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정치적 의미를 생산했다. 케이팝 팬덤 문화에서 유래한 응원 퍼포먼스가 정치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음악과 신체 동작, 그리고 응원봉이라는 시각적 요소가 결합하여 심미화된 집단 행위의 장이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팬덤 실천을 통해 이미 체화하고 있던 수행성을 광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정치적 현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는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참여자들 사이에 정서적 경험과 연대의 감각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수행적 행위로 작동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유희적 퍼포먼스가 시위의 본질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밈(Meme)’이라는 친근한 온라인 언어를 통해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¹⁾하며 더욱 강력한 확장성을 획득한다는 사실이다. 응원봉과 깃발 등의 시각적 효과와 음악의

1) 김민형(2021), “팬덤의 수행성 연구 -인터넷 밈과 시민 참여문화,” 『기호학연구』 66, 7-36; 이지연(2022), “인터넷 밈과 결합한 혐오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66-375; 김용현(2023), “놀이로서의 정치?,” 『비교문화연구』 29(1), 5-52 등을 참조하라.

청각적 리듬이 결합하여 형성된 강렬한 퍼포먼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mimetic 기호로 복제·재구성되며, 이는 현장에 부재하는 타자들까지 느슨한 연대 속으로 포섭하는 결정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오프라인 광장에서 발생한 수행적 사건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mimetic으로 재생산되고, 이를 접한 새로운 참여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광장으로 유입되는 순환 구조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소통 메커니즘의 장을 형성한다. 이로써 광장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상호 침투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이고 확장적인 수행의 공간²⁾으로 재정의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연대 양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음악의 수행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기존의 광장과 시위 문화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동원의 구조나 집단 행동의 논리 혹은 참여 주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³⁾ 케이팝 연구 역시 대중음악 산업 혹은 팬덤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⁴⁾ 이 두 연구의 흐름이 각각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보니, 대중문화적 실천과 정치적 저항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케이팝 음악과 팬덤 실천이 정치적 국면에서 어떻게 사회적 수행성을 획득하고 정치적 저항으로 재의미화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음악의 역할과 작동 기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송경재·임정빈·장우영(2016),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154-167; 조희정·강장묵(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한국정치학회보』 42(3), 311-332; 김은이(2013), “온라인과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1, 31-62 등을 참조하라.
- 3) 박선웅(1998), “문화, 의례와 정치변동,” 『한국사회학』, 29-61; 한기덕(2012), “한국사회 집회·시위 문화의 변동과 특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67-1082; 김성일(2017), “광장정치의 동학,” 『문화과학』 89, 146-168; 조기숙·박혜윤(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한국정치학회보』 42(4), 243-268; 김옥(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한국정당학회보』 9(2), 33-59; 장우영(2018), “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 『한국정치연구』 27(3), 109-144; 홍태영(2024), “2016-17년 촛불시위에 나타난 주권자의 정치,” 『사회과학연구』 32(2), 8-41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박선웅의 논문은 뒤르케임의 의례 이론을 한국 민주화 과정에 적용하여, 정치 변동을 단순한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집합적 의례와 상징적 실천의 산물로 분석한 문화사회학적 선구적 연구이다.
- 4) 이해수(2018), “한국 팬덤의 내부동학과 출현적 속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윤(2021), “아이돌 팬덤의 분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설화(2005), “대중음악 공연기획의 팬덤(Fandom)현상 연구”; 김정호(2020), “팬덤공중의 성격에 대한 시론,” 『시민과세계』 36, 53-88 등이 있다.
- 5) 이례적으로 2024년 시위에 대해서는 케이팝 팬덤의 실천과 정치적 저항의 교차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존재한다. 김형주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알렉산더의 사회적 공연 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촛불집회가 어떻게 응원봉 집회로 전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집회를 주도한 2030 여성 케이팝 팬들의 참여 동기와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응원봉·깃발·선결제 등 팬덤 문화의 물질적 실천이 집회 공간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케이팝 팬덤 문화가 정치적 집합행동과 결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김형주 2025, 5-46).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서 출발한다.

첫째, 응원봉·깃발·음악 등 케이팝 팬덤의 물질적 기표들은 어떠한 기제 속에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고 사회적 수행성을 부여받는가? 둘째, 광장에서 발생한 퍼포먼스는 어떻게 디지털 밈으로 전환되며, 그 순환 구조 속에서 느슨한 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시위 현장에서 세대를 가로지르는 소통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음악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과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의 참여문화이론(Jenkins 2006)을 주된 분석 틀로 삼아 2024년 응원봉 시위를 고찰한다. 먼저 응원봉·안무·음악 등 케이팝 팬덤의 물질적 기표들이 정치적 국면 속에서 어떻게 재맥락화되며 사회적 수행성과 상징적 권위를 획득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케이팝 팬덤 문화와 기존 깃발, 구호, 연설 등 이질적 세대의 시위 문화가 광장이라는 매개 공간 안에서 음악을 통해 어떻게 접합되는지를 살핀다. 나아가 광장의 퍼포먼스가 디지털 밈으로 전환되고 재확산, 재수행 되는 순환적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느슨한 연대의 양상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케이팝 팬덤 실천이 정치적 행위성과 결합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음악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수행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매개로서 감정적 동원의 수단을 넘어 저항의 언어 자체를 새롭게 쓰는 수행적 역능을 지님을 논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

제프리 알렉산더가 저서 『Performance and Power』에서 밝힌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은 사회적 행위를 단순한 도구적 실천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상징적 공연(performance)으로 이해한다(Alexander 2011). 알렉산더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회적 퍼포먼스는 배경 표상(background representation), 각본(script), 행위자(actor), 관객(audience), 물질적 상징(mise-en-scène), 그리고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이라는 요소들이 융합될 때 성립한다. 이 융합이 이루어질 때, 퍼포먼스는 관객에게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정치적·사회적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광장에서의 시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의 집합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특정한 상징과 서사를 통해 집합적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성을 생산해내는 수행적 사건

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이 본래 전제하는 ‘무대’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즉 광장이나 거리와 같은 오프라인의 장이었다. 그러나 2024년의 응원봉 시위는 이러한 공간적 전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응원봉의 점멸, 폐창, 구호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즉각 공유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밈이나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어 오프라인 현장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도달한다. 이때 디지털 공간은 단순히 광장의 사건을 사후적으로 ‘중계’하는 부차적 매체가 아니라, 퍼포먼스의 구성 요소들, 특히 물질적 상징과 각본이 실시간으로 순환하고 재생산되는 또 하나의 무대로 기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광장과 디지털 공간을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가 동시적으로 펼쳐지는 ‘매개적 공간’으로 파악한다. 광장의 참여자가 응원봉을 흔드는 행위와, 그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본 비참여자가 같은 음악이나 구호를 자신의 SMS에서 변형해 재생산하는 행위는 모두 알렉산더가 말한 ‘융합’의 연쇄적 과정에 포함된다. 광장에서의 물리적 현존이 퍼포먼스에 진정성과 현장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디지털 공간으로의 확산은 그 퍼포먼스가 관객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2024년 응원봉 시위를 분석할 때, 광장은 퍼포먼스가 발생하는 장소이자 동시에 디지털 공간으로 송출되는 매개점으로서 이중적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헨리 젠킨스의 참여문화 이론

헨리 젠킨스의 참여문화 이론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용자가 단순한 소비자의 위치를 벗어나 문화적 기호를 능동적으로 생산, 변형, 재확산하는 주체로 전환됨을 논증한다. 젠킨스에 따르면 팬덤은 원본 텍스트를 충실히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진유하며 독자적인 의미 체계를 구성한다. 나아가 그의 트랜스미디어 개념은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가 단일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복수의 미디어 환경을 가로지르며 확장, 재구성되는 방식을 포착한다(Jenkins 2006).

응원봉 시위는 이러한 팬덤의 참여문화 문법이 정치적 저항의 영역으로 전용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케이팝 팬덤이 축적해온 집합적 퍼포먼스의 관습과 디지털 확산의 기술은 광장에서 정치적 기호로 재맥락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시각, 청각적 퍼포먼스는 트랜스미디어적 순환을 통해 현장 바깥의 타자들에게까지 전달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참여의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알렉산더의 이론이 퍼포먼스가 무엇을 통해 진정성과 권위를 획득하는가를 설명한다면, 젠킨스의 참여문화 이론은 그렇게 생산된 퍼포먼스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변형, 재확산되는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이론을 결합하여, 광장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건으로 성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공간을 가로지르며 확장되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3. 디지털 공론장의 수행성: 밈과 느슨한 연대의 정치

밈(meme)은 본래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문화적 정보의 복제·전파 단위를 가리키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지만(도킨스 2010),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미지·텍스트·영상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변형·재생산되는 인터넷 콘텐츠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적 맥락에서 밈은 복잡한 사건이나 정서를 압축적이고 유머러스한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자들이 원본을 변형·재맥락화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알렉산더가 말한 퍼포먼스의 융합이 디지털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분산적인 형태로 재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밈을 통한 정치적 참여가 단순한 일회성 반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힘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밈의 변형과 재생산이 반복될수록, 그 과정에 가담하는 개인들은 서로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공통의 감각과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 이때 형성되는 연결은 전통적인 의미의 조직적 연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통적인 사회운동 이론이 전제했던 강한 조직적 연대와 달리,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연대는 특정 이념이나 조직에 대한 강한 귀속 없이도 형성되는 느슨한 연대(loose solidarity)의 형태를 가진다. 참여자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동일한 밈이나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변형함으로써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연결망을 구성한다.

이러한 느슨한 연대는 이현재(2025)가 제시한 ‘내과적 전체론’과도 연결된다. 내과적 전체론에서 공동체는 하나의 원리로 통제되는 유기적 전체가 아니라, 모순적이고 비일관적인 부분들이 전체를 초과하며 끊임없이 내부로부터 흔들어대는 열린 장으로 이해된다. 조직화된 단일 이념이나 위계적 지도부 없이, 각자의 취향과 일상적 정체성을 지참한 채 광장에 입장한 신체들은 전체보다 큰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서로의 모순

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공생하는 ‘내과적 집합체’의 실천적 형상을 이룬다. 이는 정상화와 순수성의 논리 바깥에서 이질적 기호들을 순환시키며 느슨한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디지털 밈의 순환 방식과 구조적으로 공명한다. 즉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입장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념으로 수렴되지 않은 채 공존하면서도, 특정 사건이나 상징을 매개로 일시적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디지털 공론장은 이러한 비동일적 주체들이 서로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본 연구는 이 느슨한 연대의 작동 방식을 2024년 응원봉 시위에서 생산된 디지털 밈의 순환 구조를 통해 분석한다.

III. 역사적 배경: 2000년대 이후 시위 문화의 변화

1. 2002년 월드컵과 2008년 촛불집회: 전환의 징후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은 한국 시위 문화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만의 군중은 특정 정치 조직의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집결하였으며, 붉은 티셔츠와 응원 도구라는 시각적 기표, 그리고 집단적 응원 퍼포먼스를 통해 강렬한 집합적 정서를 만들어냈다. 이 경험은 광장이 단순한 정치적 집회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퍼포먼스를 통해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알렉산더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거리 응원은 물질적 기표와 집합적 정서가 융합되어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로 수행된 사례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이와는 다른 결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 집회는 명백한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시위 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적 문법을 내포하고 있었다. 촛불이라는 비폭력적이고 감성적인 기표의 사용, 그리고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비전통적 시위 주체의 등장은 저항의 언어가 대중문화적 감수성과 접합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⁶⁾ 두 사건은 각각 독자적인 문화적 맥락을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광장에서의 집합적 퍼포먼스가 정치적·문화적 의미를

6) 10대 청소년의 시위 참여와 촛불이라는 기표의 결합은 2002년 효순·미선 사건 추모 촛불집회에서 이미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사망한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집회는, 온라인 커뮤니티(특히 당시 10대 사용자층이 밀집해 있던 다음 카페)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으며, 10대를 포함한 비조직적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이 집회는 이후 한국 시위 문화에서 촛불이 비폭력적 저항의 상징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8년 촛불집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문법의 직접적 전사(前史)로 볼 수 있다(김원 2025, 131-158).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2024년 응원봉 시위의 역사적 선행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 감각적 동조에서 정치적 재전유로: 응원가와 <다시 만난 세계>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 음악은 집합적 정서를 조직하는 핵심 기제였다. 당시 공식 응원가로 채택된 곡들은 군중의 신체적 리듬을 동기화하고 집합적 흥분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응원가는 가사의 의미 전달보다 리듬과 반복을 통한 감각적 동조를 유도함으로써, 서로 모르는 개인들을 하나의 수행 집합체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는 음악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퍼포먼스의 물질적 기표로서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보여준다.

<다시 만난 세계>가 저항의 음악적 상징으로 처음 기능한 것은 2016년 이화여대 사태에서였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이화여대생 200여 명은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서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합창했다. 이 곡은 본래 케이팝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으로,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제작된 대중음악이었다. 그러나 시위 참여자들은 이 곡을 자발적으로 재전유하여 저항의 맥락 속에 위치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음악은 원래의 맥락을 탈각하고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젠킨스가 말한 재전유의 실천이 음악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사례이며, 동시에 케이팝이라는 대중문화 기표가 정치적 공론장 안으로 진입한 초기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사례는 음악이 수행하는 서로 다른 두 층위의 기능을 보여준다. 하나는 감각적 동조를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조직하는 정서적, 사회적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서적 조직화의 토대 위에서 대중문화 기표를 저항의 맥락으로 전유하는 정치적 재의미화의 기능이다. 각 음악의 서로 다른 기능, 감각적 동조를 통한 집합적 정서의 조직화, 그리고 대중문화 기표의 자발적 정치화를 보여주며, 이 두 가지 기능은 2024년 응원봉 시위에서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2002년과 2008년의 경험 이후, 그리고 앞서 살펴본 2016년 이화여대 사태에서의 문화적 실천이 축적되면서, 한국의 시위문화는 문화적 퍼포먼스 요소를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들이 퍼포먼스적 요소를 시위 현장에 가져오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SNS를 통한 시위 이미지와 영상의 자발적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시위의 수행적 차원이 단순히 현장 참여자들 사이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공간을 통해 더 넓은 공중에게 전달되고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시위는 점차 퍼포먼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며, 이는 2024년 응원봉 시위에서 보이는 시각, 청각적 퍼포먼스의 직접적인 선행 조건이 된다.

3. 2024년 응원봉 시위의 등장과 그 배경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은 광장을 다시 한번 정치적 저항의 중심 공간으로 소환하였다. 이 위기 국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위기감을 광범위한 시민층에게 불리일으켰으며,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위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 시기의 시위는 조직화된 동원 구조보다 자발적 참여의 성격이 강했으며,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의 언어를 고안하고 가져왔다. 이러한 자발성의 조건이 케이팝 팬덤 문화라는 문화적 자원이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⁷⁾

케이팝 팬덤은 단순한 음악 소비 집단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집합적 퍼포먼스의 문화를 내부적으로 축적해온 집단이다. 응원봉이라는 공식 굿즈, 공연마다 색깔과 안무가 달리 설계된 집단 응원문화, 그리고 플랫폼을 가로지르며 콘텐츠를 생산, 확산하는 디지털 실천의 레퍼토리는 팬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고유한 문화이다.

2024년 탄핵 시위 국면에서 케이팝 팬덤은 이 문화 문법을 정치적 저항의 맥락으로 사용하였다. 아이돌 공식 응원봉이 광장으로 유입되었고, 케이팝 음악이 시위 현장의 사운드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팬덤 특유의 시각적 집단 퍼포먼스가 저항의 기표로 재맥락화되었다. 이 접합은 단순한 문화적 유희가 아니라, 팬덤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집합적 퍼포먼스의 기술이 정치적 행위성과 결합하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이는 기존의 시위 문화가 보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참여 언어를 광장에 도입함으로써 이전 세대의 시위 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수행적 저항의 양식을 만들어냈다.

7) 케이팝 팬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아이돌 산업의 비공식적 진행자이자 전략적 행위자로 기능한다. 박지윤(2021)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팬덤은 추종자, 소비자, 양육자, 영업자 등 다양한 위치를 유동적으로 오가며, 이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집합적 행위를 조직한다. 팬덤의 자발적 분노는 집합적 에너지로 전환될 잠재력을 지니지만, 파편화된 정체성과 전략적 분노의 개입, 분노의 자기 검열이라는 요인에 의해 그 전환이 제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팬덤의 저항성은 쉽게 부정될 수 없으며, 축적된 팬덤 실천의 문법은 새로운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재활성화될 잠재력을 지닌다. (박지윤 2021, 70-78).

IV. 응원봉 시위의 수행적 구조 분석

1. 수행의 물질적 기표: 응원봉, 깃발, 음악

2024년 응원봉 시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항의 언어가 물질적 기표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시위 문화가 주로 언어적 구호나 인쇄된 피켓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면, 응원봉 시위에서는 빛을 발하는 응원봉, 각자의 깃발, 그리고 케이팝 음악이 시각적, 청각적 기표의 핵심 매체로 기능하였다.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의 언어를 빌려 말하면, 이 기표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배경 표상과 결합하여 퍼포먼스 전체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각적 차원에서 응원봉은 특히 주목할 만한 기표이다. 응원봉은 본래 케이팝 콘서트에서 팬덤이 특정 아이돌 그룹에 대한 소속감과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상징으로, 그 색깔과 디자인은 팬덤 공동체의 고유한 시각적 언어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응원봉이 광장으로 이동했을 때, 수만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점멸하며 만들어내는 시각적 효과는 단순한 집합적 스펙터클을 넘어선다. 어둠 속에서 형형색색의 빛이 파도처럼 흔들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합적 신체를 가시화하며, 광장에 모인 이들이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공통의 디름과 감각을 공유하는 하나의 수행적 단위임을 물질적으로 증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광장을 채운 응원봉들이 동일한 색깔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각기 다른 팬덤의 고유색을 띤 응원봉들이 뒤섞인 채 함께 점멸하는 장면은, 정체성의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유지한 채 하나의 시각적 장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동질적 결속이 아닌 이질적 공존의 연대, 즉 각자의 소속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향해 함께 빛을 발하는 느슨한 연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⁸⁾

깃발은 응원봉과 함께 시각적 기표의 축을 구성하지만, 그 상징적 기능과 역사적 계보는 응원봉과 구분된다. 전통적인 시위 문화에서 깃발은 조직과 이념의 표지였다. 노동조합의 조기, 정당의 당기, 시민단체의 현수막에서 깃발은 집합적 주체의 정체성을 외부로 향해 선언하는 동시에, 그 주체의 내부를 단일한 이념적 서사로 결속하는 기능

8) 한국 시위 문화에서 저항의 물질적 상징은 역사적 국면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80년 광주에서는 ‘총’이,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기에는 ‘화염병’이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촛불’이 대중적 저항의 핵심 기표로 자리잡았다. 이후 LED 기술의 보급과 함께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 등장하며 촛불의 물질적 형태가 변화하였고, 2024년 탄핵 집회에 이르러 케이팝 팬덤 문화의 확산과 집회 기획자의 의도적 도입이 맞물리면서 응원봉이 새로운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김형주 2025, 6-7).

을 수행했다. 이 맥락에서 깃발은 본질적으로 조직적 기표였다. 깃발을 드는 사람은 그 깃발이 표상하는 집단의 일원임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이 문법에 균열이 났다. 광장에는 여전히 단체와 정당의 깃발이 존재했지만, 그와 나란히 개인이 손수 만든 수많은 이질적 깃발들이 등장했다. 특정 팬덤의 로고, 개인의 취향을 담은 문구, 때로는 유머와 풍자를 결합한 문장들이 깃발의 형태를 빌려 광장에 출현했다. 이 깃발들은 어떤 조직의 지시로 제작된 것도, 특정 이념적 강령을 표방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여기 있으며, 이것이 나다’라는 개인적 선언의 물질화였다. 이 전환이 갖는 이론적 함의는 깃발의 기능이 결속에서 병존으로 이동했다는 점에 있다. 단일한 깃발 아래 동질적 집단을 구성하는 대신, 이질적인 깃발들이 공존하는 광장은 그 자체로 느슨한 연대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참여자들은 서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아도, 각자의 깃발을 든 채 같은 광장에 서는 것만으로 하나의 수행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젠킨스의 참여문화 개념을 빌리면, 깃발은 이제 하향식으로 부여되는 정체성의 기호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맥락에서 재전유하는 개방적 텍스트로 기능한다. 2024년 응원봉 시위에서 이 문법은 한층 심화되었다. 팬덤의 응원봉 색깔, 자신이 지지하는 그룹의 로고, 때로는 케이팝과 정치적 구호를 결합한 문구를 담은 깃발들이 광장을 가득 채운 방식은, 개인적 취향과 정치적 의사가 단일한 기표 위에서 불가분하게 얹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깃발은 2016년의 전환을 경유하여, 집합적 이념의 표지에서 개인성과 연대를 동시에 담지하는 복합적 기표로 재탄생하였다.

창각적 차원에서 음악은 광장의 퍼포먼스에 시간적 구조를 부여하고 집합적 정서를 조직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비롯한 케이팝 곡들이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질 때, 참여자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수동적 청중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고 몸을 움직이는 능동적 수행자로 전환된다. 이때 음악은 알렉산더가 말한 각본의 기능을 수행한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각본이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배경 표상 즉, 그 집단이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서사, 가치, 상징적 연상의 총체로부터 특정 수행의 맥락에 맞게 호출되고 조직된 의미 구조이다. 각본은 수행의 시간적 흐름을 조직하고, 행위자와 청중이 동일한 상징적 지평 위에 서도록 이끈다. 케이팝 음악이 광장에서 각본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곡들이 이미 팬덤 문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와 정서 깊숙하게 각인된 배경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만난 세계>의 전주가 흘러나오는 순간, 참여자들은 의식적 해석의 과정 없이도 즉각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반응과 정서적 상태를 활성화한다. 이것이 각본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음악의

리듬과 가사는 참여자들의 신체적 반응과 정서적 상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며, 이 과정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수만 명의 개인들이 동조화된 집합적 행위자로 구성된다. 실제로 2024년 12월 7일 국회 앞 집회에서는 <다시 만난 세계>를 필두로, 에스파의 <위 플래시>, 로제의 <아파트>, 지드래곤의 <빠딱하게>,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나가> 등 200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최신곡에 이르는 케이팝 히트곡들이 이른바 ‘집회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며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주목할 것은 이 선곡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응원봉을 든 청년들이 광장을 가득 채운 장면을 목격한 집회 주최 측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 즉흥성은 각본의 실패가 아니라 각본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어야 한다. 알렉산더의 의미에서 각본은 고정된 대본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신체와 분위기, 상황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재구성되는 살아 있는 의미 구조이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 측이 청중의 몸이 이미 특정 음악에 각인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읽어내고 그에 응답하는 선곡을 내놓은 순간, 행위자와 청중, 각본과 미장센이 하나로 수렴하는 알렉산더적 의미의 ‘융합’이 성립했다.⁹⁾ 이 융합의 순간이야말로 퍼포먼스가 진정성을 획득하고,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단순한 군중이 아닌 동조화된 집합적 행위자로 구성되는 임계점이다.

이처럼 응원봉과 음악이라는 두 기표는 각각 시각적, 청각적 채널을 통해 광장의 참여자들을 하나의 수행적 단위로 묶는 동시에, 그 결합을 통해 단일 기표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총체적 감각 경험을 생산한다. 이 감각 경험이야말로 알렉산더가 퍼포먼스의 성공 조건으로 제시한 ‘융합’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표들이 광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이미 케이팝 팬덤 문화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친숙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응원봉 시위의 물질적 기표들은 대중문화 기표의 정치적 재맥락화라는 과정을 통해 그 상징적 효과를 획득한다.

대중문화 기표의 정치적 재맥락화란, 원래의 소비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된 기표가 정치적 저항의 맥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젠킨스가 참여문화 이론에서 제시한 재전유의 개념은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젠킨스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문화 산업이 생산한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맥락과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재의미화하는 능

9) 알렉산더는 근대 사회가 분화되면서 공연을 구성하는 요소(텍스트, 배우, 관객, 연출, 무대장치 등)들이 점차 분리, 전문화되는 과정(탈융합)을 겪어왔다고 본다. 이렇게 분리된 요소들이 특정한 수행의 순간에 다시 하나로 결합될 수 있을 때(재융합) 공연은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되며, 반대로 이 재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연은 의미 전달에 실패한다고 본다. (Alexander 2014, 3-24)

동적 실천 주체다. 응원봉 시위에서 케이팝 기표들의 이동은 바로 이러한 재전유의 집합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팬덤의 소비재였던 응원봉은 저항의 도구로, 콘서트의 음악은 집회의 각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전환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의 집합적 정치 행위를 구성한다.

주목할 것은 이 재맥락화가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분산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어느 조직도 응원봉을 들고 나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어느 기획자도 <다시 만난 세계>를 집회의 공식 주제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만명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기표를 들고 광장에 모였다는 사실은, 케이팝 팬덤 문화가 이미 그 자체로 강력한 집합 행동을 내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체득된 응원봉 사용법, 때창의 감각, 특정 리듬에 맞춰 신체를 동조화하는 경험은 광장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도 즉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수행적 역능으로 기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표들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광장에서 유동적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유동적 공동체성이란, 구성원들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나 공유된 이념을 전제하지 않고, 특정한 기표와 수행의 공유를 매개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집합적 정체감을 가리킨다. 응원봉 시위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 세대적 배경, 팬덤 소속을 알지 못한 채로도, 응원봉을 들고 같은 음악에 맞춰 안무를 하는 순간 하나의 수행적 공동체를 이룬다. 이 공동체는 집회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되지만, 그 수행의 경험은 참여자들의 기억과 정서 속에 각인되어 이후의 정치적 참여를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유동적 공동체성의 형성이야말로, 응원봉 시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의 집합을 넘어 하나의 성공적인 사회적 퍼포먼스로 성립할 수 있었던 핵심적 조건이다.

2. 세대 간 문화적 접합과 광장의 매개 공간성

응원봉 시위의 광장은 단일한 문화적 문법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이 각자의 수행 양식을 가지고 모여든 복수의 층위로 구성된 공간이었다. 한편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표되는 민중가요의 전통이, 다른 한편에서는 케이팝의 리듬과 응원봉의 빛이 공존했다. 그런데 이 공존은 처음부터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성립한 것은 아니었다. 집회의 초기 국면은 케이팝 위주로 전개되었다. 응원봉을 든 청년 세대가 광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다시 만난 세계>를 비롯한 케이팝 곡들이 집회의 주된 음악적 언어로 자리잡았고, 기성세대에게 이 풍경은 낯설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낯섬은 곧 SNS를 통한 쌍방향 학습의 동력이 되었다. 기성세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케이팝 곡 목록을

공유하며 ‘사전 학습’에 나섰고, 반대로 청년 세대는 SNS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기존 민중가요를 접하고 따라 부르는 방법을 익혔다. 이 상호 학습의 과정은 광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층위는 단순히 나란히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광장 안에서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접합하면서 복잡한 문화적 동학을 만들어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탄생하여,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집합적 기억의 기표로 자리잡아왔다. 이 곡을 함께 부르는 행위는 단순한 음악적 경험이 아니라, 민주화의 역사적 서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 투쟁의 계보를 잇겠다는 수행적 선언이다. 반면 케이팝 음악과 응원봉은 그러한 역사적 서사와 무관하게 형성된 동시대 청년 세대의 감각적, 정서적 언어이다. 이 두 언어는 서로 다른 시간성과 정동의 구조를 가지며, 그 차이는 광장 안에서 세대 간 수행 양식의 마찰로 가시화된다.

그러나 이 긴장이 단순한 갈등으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장에서의 수행은 어느 한 쪽의 문법이 다른 쪽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양식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채 병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응원봉을 든 청년들이 가사를 따라 부르려 시도하는 장면, 혹은 케이팝 때창의 순간에 기성세대 참여자들이 리듬에 몸을 맡기는 장면은 이 병존이 단순한 공간적 공존을 넘어 일정한 문화적 번역의 과정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번역의 과정은 완전하지 않으며, 오해와 닢숨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한 번역의 과정 자체가 광장을 단순한 저항의 장소가 아니라 세대 간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응원봉 시위의 광장은 ‘세대 간 문화적 공유의 장’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공유’는 동질적인 문화를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문화적 언어를 가진 주체들이 하나의 물리적, 상징적 공간을 함께 구성하고 그 경험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기성세대는 케이팝의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저항이 더 긴 시간적 계보 위에 놓여 있음을 감각한다. 반대로 청년 세대에게 민중가요와의 조우는 자신들의 참여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서사 안에 위치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집회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함께 배우는 순간, 청년 세대는 자신이 그 투쟁의 계보를 단절 없이 잇고 있는 주체임을 수행적으로 확인한다. 이 확인의 경험은 케이팝 팬덤이 제공하는 동시대적 연대의 감각과는 다른 층위의 것으로, 역사적 시간성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정치적 주체화의 계기로 기능한다. 이처럼 두 세대는 서로의 언어를

통해 각자가 도달할 수 없었던 시간적 층위에 접속한다. 이 상호적 접속의 경험은 광장이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 중 하나로, 세대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감각을 일시적이지만 실질적인 방식으로 형성한다.

이 세대 간 접합의 동력은 광장이 지닌 매개적 공간 개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광장은 물리적 현존의 공간인 동시에, 서로 다른 세대의 문화적 기억과 감수성이 만나는 상징적 매개의 공간이다. 민중가요가 역사적 기억을 현재의 광장으로 소환하고, 케이팝이 동시대적 감각을 그 기억과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광장은 과거와 현재,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를 동시에 품는 중층적 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중층성이야말로 응원봉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기억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그 퍼포먼스가 광장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 이 확산의 과정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V. 디지털 입을 통한 수행의 순환과 확장

1. 광장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입의 생성 기제

광장에서의 퍼포먼스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2024년 응원봉시위에서 생산된 상징적 장면들 수만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점멸하는 시각적 스펙터클, <다시 만난 세계> 떼창의 음향적 파동, 특정 구호가 광장을 가득 채우는 순간은 참여자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송되면서 순환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광장의 퍼포먼스는 디지털 입이라는 형식으로 압축되고 재조합되어, 광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에게까지 도달하는 유통 가능한 상징 단위로 변환된다.

이 변환의 핵심 메커니즘은 퍼포먼스의 기호적 압축이다. 광장에서의 수행은 본래 다층적인 감각 경험의 총체로, 시각·청각·촉각·후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신체적 현존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경험이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될 때, 그것은 불기피하게 특정 순간과 이미지로 압축된다. 수십 초의 짧은 영상 클립, 응원봉 불빛이 가득 찬 광장을 담은 한 장의 사진, 혹은 특정 구호나 가사를 이미지 텍스트로 결합한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이 그 압축의 전형적 형태이다. 이 압축의 과정은 단순한 정보 손실이 아니다. 오히려 압축은 광장의 수많은 요소들 중 가장 강렬하고 상징적인 순간을 선별하여 전면화함으로써, 원래의 퍼포먼스가 가졌던 의미를 특정 방향으로 강화하고 고착시키는 편집의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가 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록이나 보도를 넘어, 수용자들이 그것을 변형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형식적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응원봉 시위에서 생산된 콘텐츠들은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다. 응원봉의 다채로운 배열, 때창 장면의 특정 프레임, 또는 집회 현장의 손글씨 피켓 문구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가지면서도,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와 결합하여 얼마든지 다른 맥락을 이동할 수 있는 기호적 유연성을 지녔다. 이 유연성이 밈화의 조건이자 동력이다.

밈화된 콘텐츠의 확산은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와 속도로 이루어진다. 트위터(현 X)는 해시태그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밈의 수평적 확산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특정 해시태그가 트렌딩 목록에 오르는 순간, 그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이용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일시적인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 연결망은 팔로우 관계나 기존의 사회적 유대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직 동일한 해시태그의 공유라는 단일한 행위를 매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느슨한 연대의 디지털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틱톡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밈의 확산에 개입한다. 틱톡의 알고리즘은 팔로우 관계보다 콘텐츠의 완결성과 반응률에 기반하여 영상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을 우회하여 전혀 연관이 없는 이용자들에게까지 콘텐츠를 도달시킬 수 있다. 응원봉 시위의 장면을 담은 틱톡영상들은 특히 짧은 형식과 음악과의 결합이라는 플랫폼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케이팝 팬덤 외부의 이용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 나아가 틱톡은 이용자들이 동일한 음원이나 영상 클립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버전을 제작하는 기능을 통해 밈의 재생산과 변형을 플랫폼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촉진한다. 유튜브는 앞의 두 플랫폼과는 다른 시간적 층위에서 기능한다. 트위터와 틱톡이 실시간의 빠른 확산을 담당한다면, 유튜브는 집회 전체의 장편 기록 영상, 현장 인터뷰, 그리고 시위의 의미를 분석하는 해설 영상 등을 통해 퍼포먼스를 아카이브화하고 의미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튜브에 축적된 영상들은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도 접근가능한 집합적 기억의 저장소로 기능하며, 이후의 연구자나 시민들이 응원봉 시위를 역사적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1차 자료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튜브는 밈의 순환적 확산보다는 퍼포먼스의 역사화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트위터의 수평적 확산, 틱톡의 재생산, 유튜브의 아카이브화라는 서로 다른 기능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을 구성하며, 디지털 밈을 광장의 단순한 기록이 아닌 저항의 언어를 시공간의 경계 너머로 확장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만든다.

2. 밈의 재수행과 느슨한 연대의 형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밈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밈의 수용자들은 그것을 변형하고 재맥락화하여 새로운 버전을 생산함으로써 퍼포먼스의 연쇄적 재수행에 참여한다. 이 재생산, 변형, 재맥락화의 순환적 구조는 광장의 퍼포먼스를 일회적 사건으로 봉합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지속시키는 동력이 된다. 젠킨스가 참여문화 이론에서 강조했듯, 수용자들은 문화 산업이 생산한 텍스트를 자신들의 맥락과 필요에 맞게 재전유하는 능동적 실천 주체이다. 응원봉 시위의 밈 문화는 이 재전유의 집합적 실천이 정치적 퍼포먼스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맥락화의 양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집회 현장의 응원봉 장면에서 다른 음악을 덧입히거나, 특정 피켓 문구를 다른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는 패러디 형식의 밈, 혹은 시위 현장의 이미지를 특정 팬덤의 시각적 문법으로 재편집한 콘텐츠들이 그 예시이다. 이 과정에서 원본 퍼포먼스의 맥락은 부분적으로 탈각되고 새로운 의미가 접합되지만, 동시에 응원봉이라는 핵심 기표는 변형을 거치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콘텐츠들 사이의 연결성을 보장한다. 이 연결성이 분산되고 이질적인 재생산 행위들을 하나의 느슨한 의미망으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

이 순환적 재생산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대는 이현재가 제시한 내파적 전체론의 개념과 공명한다. 응원봉 시위의 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들은 단일한 이념적 입장이거나 조직적 소속을 공유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탄핵의 정치적 정당성에 집중하고, 어떤 이는 케이팝 팬덤 문화의 광장 진입이라는 문화적 사건에 주목하며, 어떤 이는 세대 간 연대의 감동적 장면에 반응한다. 이 이질적인 동기들은 하나의 통일된 서사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응원봉이라는 공통의 기표를 매개로,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지우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결집한다. 이것이 느슨한 연대의 실질적 작동 방식이다. 강한 연대가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면, 느슨한 연대는 이질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통의 기표 주변에서 형성되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결집이다.

이 느슨한 연대의 구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물리적으로 광장에 부재했던 이들의 참여이다. 온라인 연대는 흔히 ‘진짜’ 참여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덜 진지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응원봉 시위의 맥락에서 디지털 공간의 참여자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밈을 공유하고 변형하며, 해시태그에 동참하고, 현장 영상에 댓글로 반응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 퍼포먼스의 구성 요소를 재생산하고 그 의미망을 확장하는 수행적 실천이었다. 알렉산더의 사회적 퍼포먼스 이론에서 관객은 단순한 수동적 수신자가 아

나라 퍼포먼스의 의미를 완성하는 능동적 참여자이다. 디지털 공간의 참여자들은 바로 이 관객의 역할을 온라인이라는 매개된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광장의 퍼포먼스가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온라인 연대의 구조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의 디지털 시위 문화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2010년대 이후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해시태그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2015년 안전보장법 반대 운동과 2022년 국장반대 운동에서 디지털 공간의 밈과 해시태그가 오프라인 집회와 상호작용하며 참여를 확장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경우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억제 요인이 강하게 작동하는 맥락에서, 디지털 공간이 직접 참여의 대안적 통로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연대가 오프라인 참여의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정치적 수행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응원봉 시위와 비교할 때, 두 사례 모두 디지털 공간의 밈과 해시태그가 이질적 주체들을 느슨하게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작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오프라인 광장과 관계맺음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공간은 광장의 퍼포먼스를 증폭하고 확장하는 매개적 공간으로 기능한 반면, 일본의 경우 디지털 공간이 오프라인 참여의 억제를 우회하는 대안적 공론장으로 더 강하게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차이는 두 사회의 시위문화와 디지털 공론장의 구조적 조건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I. 결론

이 논문은 2024년 응원봉 시위를 음악적 수행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케이팝이라는 대중음악의 기표가 어떻게 정치적 저항의 언어로 전환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환이 광장과 디지털 공간을 가로지르며 어떤 방식으로 집합적 정치 행위를 구성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음악을 단순한 배경이나 도구가 아니라, 퍼포먼스의 시간적 구조를 조직하고 참여자들의 신체와 정서를 동조화하는 핵심 기제로 위치시켰다.

음악적 수행의 차원에서 케이팝은 알렉산더의 퍼포먼스 개념에서의 각본으로 기능하였다. <다시 만난 세계>의 전주가 흘러나오는 순간, 참여자들은 의식적 해석 없이도 즉각적으로 신체적 반응과 정서적 상태를 활성화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곡이 이미 팬덤 문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신체 깊숙이 각인된 배경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주

목할 것은 2024년 12월 7일 집회의 선곡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즉흥성은 각본의 실패가 아니라 유연성을 보여준다. 음악적 각본은 참여자들의 신체와 분위기에 즉각 반응하며 재구성되는 살아 있는 의미 구조였으며, 이 재구성의 순간에 행위자와 청중, 각본과 미장센이 하나로 수렴하는 융합이 성립했다.

광장의 음악적 수행은 단일한 장르 안에 머물지 않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표되는 민중가요의 전통과 케이팝의 리듬이 하나의 광장에서 긴장하고 접합하면서, 음악은 세대 간 문화적 번역의 매개로 기능하였다. SNS를 통한 쌍방향 음악 학습이 광장 안팎에서 이루어지면서, 두 세대는 서로의 음악적 언어를 상호적으로 익혀나갔다. 광장의 음악적 퍼포먼스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폐창의 음향적 파동, 특정 가사와 구호의 결합, 케이팝 음원에 맞춰 재편집된 영상들은 디지털 밈의 형식으로 압축·순환하였다. 트위터의 수평적 확산, 틱톡의 음악 기반 재생산, 유튜브의 아카이브화는 음악적 수행을 시공간의 경계 너머로 확장했으며, 광장에 물리적으로 부재했던 이들도 퍼포먼스의 능동적 참여자로 편입되었다. 이 순환적 과정에서 응원봉 시위는 특정 날짜와 장소에 한정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과 광장 사이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퍼포먼스로 존재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포스트 디지털적 저항의 특징을 보여준다. 포스트 디지털이란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하거나 소멸시킨 상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물리적 현존이 서로 병존하는 동시에 뒤섞여 하나의 경험을 구성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응원봉 시위에서 광장의 신체적 현존과 디지털 밈의 순환은 서로 분리된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를 성립시키는 동시적이고 상호구성적인 두 층위였다. 이 점에서 2024년 응원봉 시위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저항이 더 이상 광장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시에 순수하게 온라인적이지도 않은, 그 사이의 매개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2024년 응원봉 시위는 한국 시위 음악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변형이었다. 그것은 2002년 촛불집회에서 시작된 비조직적 시민 참여의 계보, 2016년 이화여대 시위에서 케이팝이 처음으로 저항의 언어로 호출된 전환점, 그리고 팬덤 문화가 체득해온 음악적 집합 행동의 감각이 하나의 광장에서 수렴한 결과였다. 케이팝은 이 수렴의 음악적 기호였으며, 민중가요와의 병존은 그 수렴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역사적 축적 위에서 이루어진 접합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도달한 지점은 하나의 결론이기보다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케이팝이라는 글로벌 대중음악의 기표가 민주주의적 저항의 언어로 재전유되는 이 현상은, 음악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놓는가. 정치적 의미를 본래적으로 내포하지 않았던 음악이 광장에서 저항의 각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음악의 정치성은 텍스트 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의 맥락 속에서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응원봉 시위를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음악적·정치적 실천으로 바라보게 하며, 동시에 디지털 시대 음악 사회학과 수행 연구가 앞으로 탐구해야 할 새로운 의제를 열어놓는다.

참고문헌

- 강래형. 2019. “1970~1980년대 한국 민중가요의 가사와 음악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빈. 2019. “청년 미디어 실천의 문화정치에 대한 비판적 해석.”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형. 2021. “팬덤의 수행성 연구 -인터넷 밈과 시민 참여문화.” 『기호학연구』 66: 7-36.
- 김성일. 2017. “광장정치의 동학.” 『문화과학』 89: 146-168.
- 김옥. 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한국정당학회보』 9(2): 33-59.
- 김은이. 2013. “온라인과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대인간 대화와 정치 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1: 31-62.
- 김용현. 2023. “놀이로서의 정치?: #멸공 챌린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익명성의 문제.” 『비교문화연구』 29(1): 5-52.
- 김정호. 2020. “팬덤공중의 성격에 대한 시론: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나타난 문제인 팬덤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36: 53-88.
- 김형주. 2025. “공연으로서 2024년 여의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2030 여성 케이팝(K-pop) 팬의 활동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31: 5-46.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노형일·양은경. 2017. “비폭력 저항 주체의 형성.” 『한국방송학보』 31(3): 5-41.
- 도킨스, 리처드. 2010.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이상임 역). 서울: 을유문화사.
- 문정민. 2013. “시위 현장에 선 인디음악가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웅. 1998. “문화, 의례와 정치변동.” 『한국사회학』 32: 29-61.
- 박지윤. 2021. “아이돌 팬덤의 분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재·임정빈·장우영. 2016.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154-167.
- 이용호. 2024. “팬덤 정치, 네트워크 포폴리즘인가, 참여의 확장인가?: 한국의 팬덤 정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72: 5-48.
- 이지연. 2022. “인터넷 밈과 결합한 혐오에 관한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부족주의와 혐오적 인터넷 밈의 의례적 수행.”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366-375.
- 이현재. 2025. “디지털폴리스의 포스트-인문적 비전: 저월하는 비체들의 연대를 위하여.” 『철학연구』 149: 1-30.
- 이혜수. 2018. “한국 팬덤의 내부동학과 출현적 속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우영. 2018. “촛불집회의 지속과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연구』 27(3): 109-144.
- 조기숙·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한국정치학회보』 42(4):

243-268.

조설화. 2005. “대중음악 공연기획의 팬덤(Fandom)현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정·강장묵. 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한국정치학회보』 42(3): 311-332.

주현식. 2018. “촛불집회, 블랙텐트, 그리고 사회적 퍼포먼스.” 『한국연극학』 66(1): 183-221.

최종렬. 2011. “사회적 공연으로서의 2008 촛불집회.” 『한국학논집』 42: 227-270.

한기덕. 2012. “한국사회 집회·시위문화의 변동과 특징: 역사적 맥락에 따른 그 유형과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1067-1082.

홍성태. 2018.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략과 프레임.” 『한국사회학』 52(4): 1-38.

홍태영. 2024. “2016-17년 촛불시위에 나타난 주권자의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32(2): 8-41.

Alexander, Jeffrey C. 2011. *Performance and Power*. Polity Press.

Alexander, Jeffrey C., Bernhard Giesen, and Jason L. Mast, eds. 2006. *Social Performance: Symbolic Action, Cultural Pragmatics, and Rit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exander, Jeffrey C. 2014. *The Fate of the Dramatic in Modern Society: Social Theory and the Theatrical Avant-Garde*. *Theory, Culture & Society*, 31(1).

Bennett, W.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2013.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Jenkins, Henry.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Abstract

New Forms of Resistance in the Post-Digital Era: The Musical Performativity and Solidarity of the 2024 Cheer Stick Protests

Song HyunJe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Music

This study analyzes the 2024 impeachment cheer stick protests from the perspective of musical performance. The key questions are how the symbol of popular music called K-pop was converted into the language of political resistance and how the transition organized collective political action across the square and digital.

To this end, this study takes Jeffrey Alexander's theory of social performance and Henry Jenkins' theory of participatory culture as the main framework for analysis. First, through Alexander's theory, we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the material signs of the K-pop fandom, such as light sticks, flags, and music, are composed of a political performance in the square through background representations, screenplays, and mise-en-scène recombination. Next, through Jenkins' theory of participatory culture, we examine how the horizontal spread of X (formerly Twitter), TikTok's music-based reproduction, and YouTube's archive extend the square's performance beyond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Furthermore, it explains the structure of loose solidarity in which heterogeneous subjects temporarily unite through a common signifier without a single ideology or organizational affili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2024 light stick protest showed a new style of performance resistance in three dimensions. First, K-pop music served as a screenplay for the performance as a background representation already imprinted on the participants' bodies, and through this, ten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were composed of synchronized collective actors. Second, the square became a venue for cultural translation and mutual learning across

generations, functioning as a medium space where the musical languages of heterogeneous generations of K-pop and folk songs are tense and bonded. Third, the performance of the square expanded beyond the physical field through the cycle of digital memes, and in the process, a structure of post-digital resistance was formed in which online and offline penetrated each other.

By demonstrating the process of re-transmitting the post-political pop culture symbol of K-pop into the language of political resistance in the context of the practice of the squar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politics of music is not fixed in the text, but is newly constructed every time in the context of the practice. Furthermore, it is established that the 2024 cheering stick protest is not a break in the Korean protest music culture, but a junction and transformation made on the historical accumulation.

■ Key words : Performance, light stick protests, K-pop fandom, post-digital era, loose solidarity, digital public sphere

